

2023년 낙뢰 7만 3341회, 여름철에 75% 집중 - 「2023 낙뢰연보」 발간

기상청(청장 유희동)은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「2023 낙뢰연보」를 발간하였다. 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△월별 △광역시·도별 △시·군·구별 낙뢰 횟수 △단위 면적당(km²) 횟수 △낙뢰 공간 분포 △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이번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7만 3천 회로, 최근 10년 평균 약 9만 3천 회보다는 약 21.5% 적게 나타났다. 전국 광역시·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8%(12,982회)로 가장 많았고, 강원특별자치도(11,973회)와 경기도(11,271회)가 그 뒤를 이었으며, 대전 광역시가 270회로 가장 적게 관측되었다.

2023년 낙뢰의 약 75%가 여름철(6월~8월)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. 하지만 6월에는 평균보다 많이 관측되었고, 8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되어,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상이했다.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5,346회(약 35%)가 관측되었고, 특히 7월 26일은 하루에 지난해 낙뢰의 약 10%(7,220회)가 관측되어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되었다.

「2023 낙뢰연보」는 기상청 행정누리집(<https://www.kma.go.kr/kma>) ▶자료실 ▶기상간행물 ▶낙뢰연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, 전자파일(PDF) 형태로 제공된다.

유희동 기상청장은 “최근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, 낙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, 낙뢰 시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” 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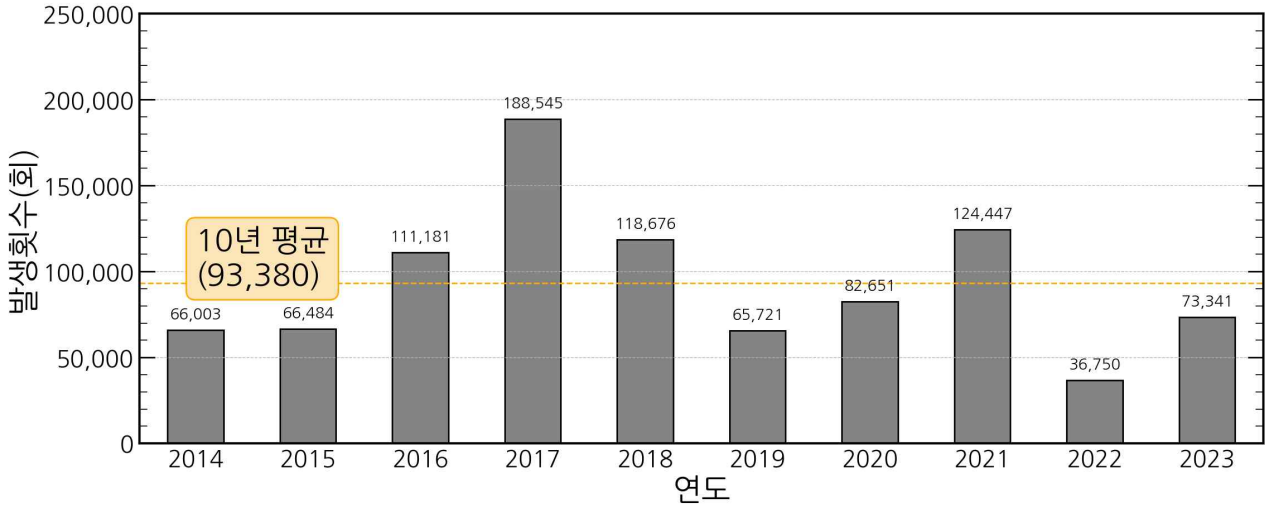
붙임 「2023 낙뢰연보」 발간 참고자료

담당 부서	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	책임자	과 장	김명규 (02-2181-0861)
		담당자	연구관	남경엽 (02-2181-0866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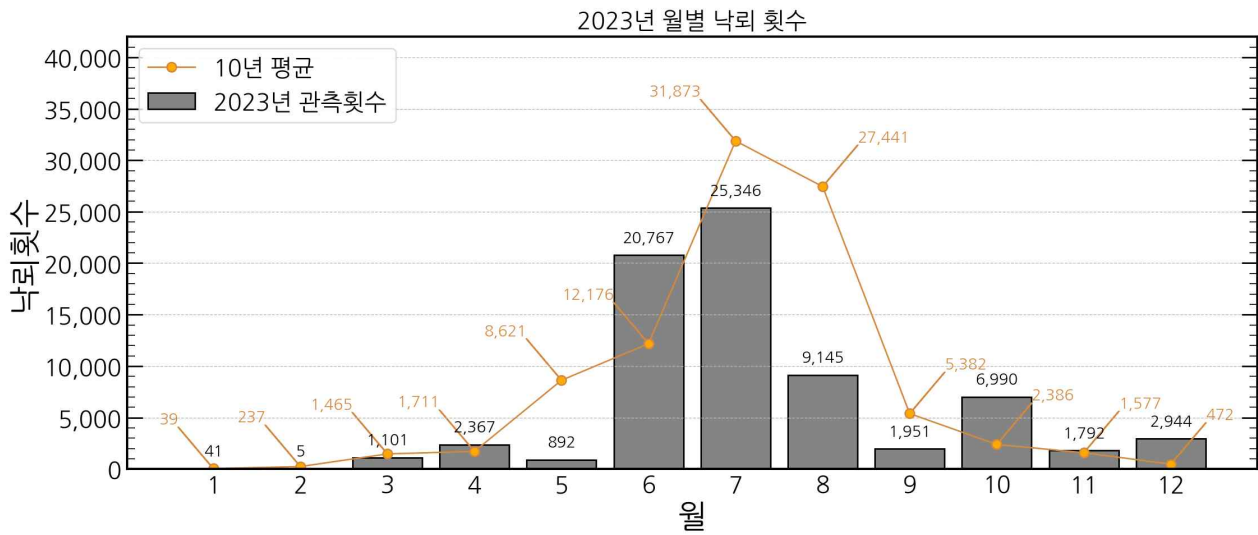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10년 낙뢰 발생 횟수

○ 연간 통계



<그림1> 최근 10년(2014~2023)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

○ 월간 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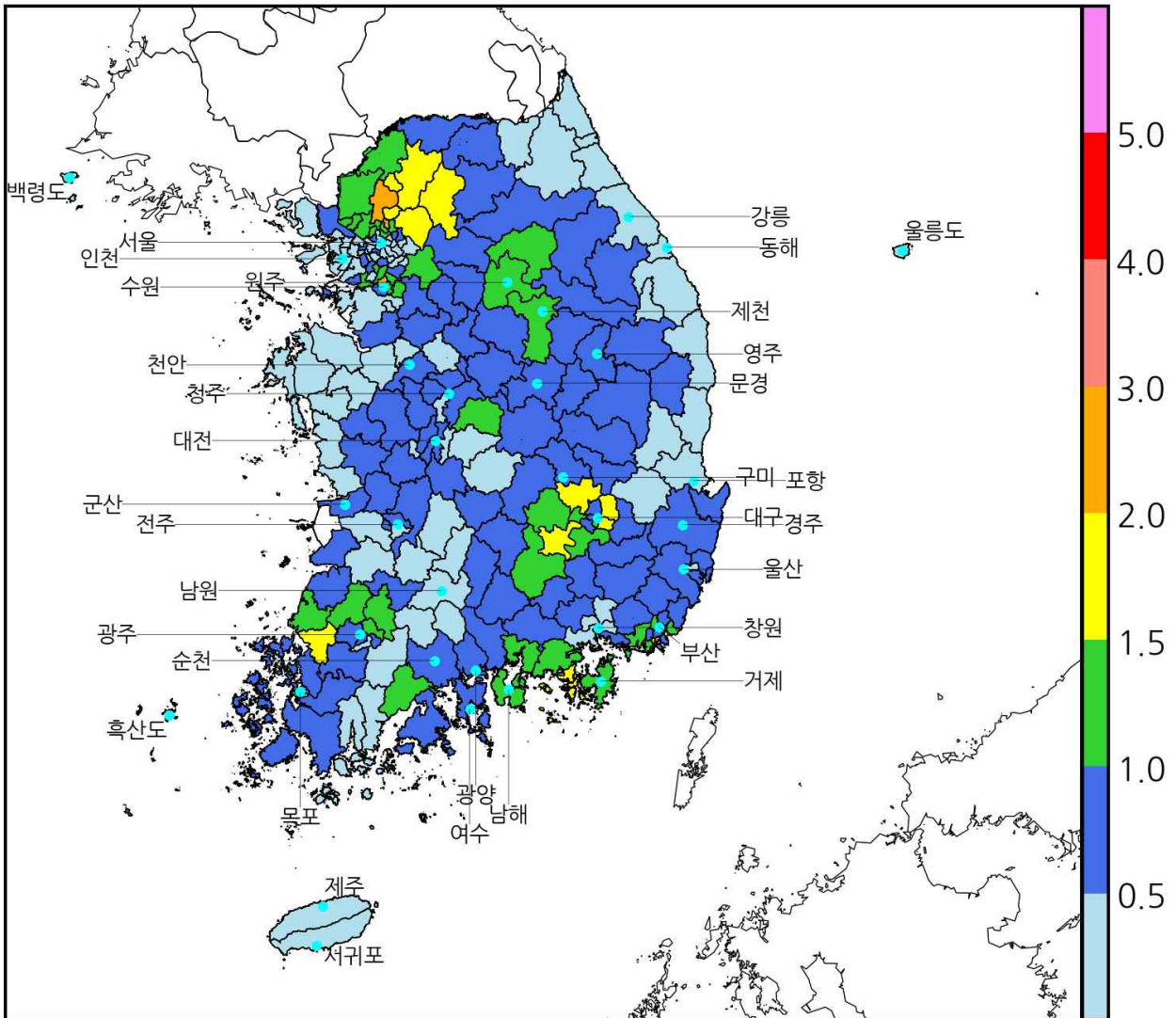


<그림 2> 2023년 전국 월별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

□ 2023년 단위면적당 낙뢰횟수 공간분포

LIGHTNING 2023

hits/km²



<그림 3> 2023년 시·군·구별 단위면적당 낙뢰횟수 공간분포(hits/km² · year)